

## 지혜 X.

### 집착을 벗어나는 하늘의 지혜 '자족'

#### 1. 본문 - 당황한 제자들

[사도행전 1:6-7]

6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7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부활 후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 나라는 그들에게 허구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이 처한 억압과 고통의 해결이 바로 눈 앞에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6절의 말씀처럼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들었을 때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 벅참, 환희, 기쁨, 소망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함께 우리나라도 회복되고, 내 가정도 그리고 나도 회복된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너무 기대와 확신에 찬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지금이냐고 물었다. 정황상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지금이다. 오랫동안 기다렸다.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웃고 환희에 찬 눈물을 함께 흘려야 정상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셨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회복의 때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 가운데 있는 것임을 강조하셨다. 정황상 40일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속에서 본다면, 제자들의 질문은 무리가 있는 질문이 아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 하셨을까?

#### 2. 하늘의 지혜 VS 인간의 '알'

지혜 시리즈에서 강조한 하늘의 지혜는 다니엘이 깨달았던 '시간, 때, 계절'에 대한 이해라고 언급했다. 하늘의 지혜와 대조되는 개념이 인간의 '깨달음'이다.

##### (1)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는 '계시'로 비추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감추어지고 가려졌던 것을 '본다'는 개념이 어울린다. 존재적인 깨달음이다.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존재의 개념은 내가 보았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의 눈은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의 눈'이 떠지는 것이다. 내가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넘어선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이다. 보지 않았지만, 듣지 않았지만, 그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에 관한 것이다.

존재감은 유한하지 않다. 오히려 죽음 후에 그 존재감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존재감은 현실이 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확실한 존재감으로 인해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 이 존재감이 서로에게 더 확실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강렬한 한 번의 만남이 주는 존재감은 분명하지만, 그 후로 교제가 없다면 존재감은 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안다는 것은 '시간'이 담보된 '인격적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혜는 세월이라는 시간속에 인생을 버무려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지혜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저절로 아는 것이다. 스며드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순간보다 일상이 중요하다. '일상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는 눈이 지혜이다. 지혜자의 강력한 삶의 근거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과 연합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함을 선물로 받는다. 여유가 있다. 조급하지 않다.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다. 보여지는 순간이 아니라 '영원'안에 살기 때문이다.

## (2) 인간의 '앎'

[고린도전서 13:9-10]

9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런데 인간의 깨달음은 '부분적'이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받은 육의 저주는 모든 것을 구별하고 구분해야 하는 삶이 시작된 것이다. 자신이 구분하고 분별해서 받아들이는 것만 '안정감'이 된다. 모든 것을 경험해보아야 믿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알아야 불안하지 않다. 성경은 이와같은 인간의 '앎'에 대해서 '부분적'이라 말한다. 영은 창조의 근원되는 '창조주'의 존재를 보는 것이다. 그러나 육은 '창조주'는 보이지 않고 보여지는 '창조물'만을 본다. 왜? 자신이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다 알아야 하고, 경험해 보아야 말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조주의 특성은 한 마디로 '전지전능'이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스스로 '전지전능'의 위치에 도달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 땅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힘을 얻을 수 있다. 남보다 더 많이 알면 존중받을 수 있는 위치가 주어진다.

## (3) 부분적인 제자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는 부분적인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묻는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안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의 퍼즐안에 이스라엘이라는 퍼즐의 피스가 포함되어 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신학과 신앙이 확고해지는 것이다. 전체와 영원에 대한 눈이 떠지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 속에서 나를 보고, 영원 속에서 현재를 보는 것이다. 전체 속에서 나를 보면 현위치의 '좌표와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어두움이 짙은 것을 보면 반대로 새벽이 가까이 왔음을 아는 것과 같다.

오늘 제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부분'안에 갇혀있는 것은, 이 부분안에 '전체'가 있음을 모르고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부분이지만 이 확실한 부분의 퍼즐이 없으면 전체의 그림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부분이지만, 내 안에 '열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나와 똑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유일하다. 독보적이다. 즉, 내가 온 우주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아는 것이다. 나 하나로 인해 이 세상의 존재의 이유가 된다. 신앙은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된 '나'의 존재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가 모든 만물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왜 '부분'의 '앎'에 집착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성령'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4-5, 8]

4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탁은 하나이다. "이 모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성령을 기다리라. 내 육과 혼의 관심과 호기심 그리고 그 욕망은 이 때와 기한을 알 수 없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내 나라의 회복의 때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 내 노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내가 볼 수 없었던 영역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이다.

### 3. 집착의 삶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들의 성급한 질문의 원인을 알게 되었다.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현 상황에 함몰된 이들의 불안감이 나타난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40일간 전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보이는 것으로 대답한다.

왜 그렇게 알고 싶었을까? 그 마음의 뿌리는 두려움이다. 불안함이다. 묶여있는 '내 자신'이다. 엄마품을 잃은 아가의 불안함은 집착으로 점철된다.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다. 그래서 엄마 말고 다른 것에 집착하여 불안함을 해소하는 것이다. 먹을 것으로, 과잉된 관계의 소유욕으로 자신을 확인한다. 그래서 운다. 때를 쓴다.

'집착'은 소유를 통해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다. 금기된 선악과를 소유함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소유를 찾아 이 땅에 자신의 업적을 세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 했던 탕자, 그가 깨달은 것은 결국 아버지의 품이었다. 허망했다. 허무했다. 의미없었다. 무엇이 탕자를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떠나게 했는가? 무엇에 집착했는가? '욕망'이다. '야망'이다. 성취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 하는 마음이다. 이 욕망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 쉴 수 없게 한다. 불안하게 한다. 만족함이 없게 한다. 그래서 오늘이 행복하지 않다. 행복해도 불안하다. 그래서 더 집착한다. 더 알아야 하고, 더 소유해야 하고, 더 경험해야 한다. 그래야 남과 다른 '나'를 발견한다.

### 4. 집착의 삶에서 벗어난 나 '자족'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하다. '성령'이 오셔서 알게하실 것이다. 보게하실 것이다. 무엇을 알게하고 무엇을 보았을까? 예수님은 승천하여 없지만 그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미 예언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는 것이다. 어떤 때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시작되었음을 아는 것이다. 그 예수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이 임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다. 성령이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의 선포로 나타난다.

[사도행전 3:6]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며 알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시작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나타나는구나. 이 때부터 베드로는 다른 존재가 된다. 찌질하고 두려움 가득한 제자가 아니라 위대한 사도가 된다. 그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상황과 환경에 묶이지 않는 이 상태가 바로 '자족'의 상태이다.

[빌립보서 4: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하나님 나라로 인해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고 만족하는 상태가 자족이다. 그 사람이 오늘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벗어날 수 있다. 부분적인 앞에서 나오라. 예수안에 있는 진리를 보라. 그것이 복음이다. 기쁨이다.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자. 자유하자. 그 예수를 증거하시는 성령을 사모하라. 할렐루야